
- 민선8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취임 1주년 기념사

균형과 화합 위에 서구
내일을 열어나가는 구



인천광역시 서구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존경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다시 7월입니다. 지난해 구민들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내디딘 첫걸음이 어느새 사계절을 지나왔습니다.

1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는 오늘 이 자리에 본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신 60만 구민 한분 한분과 그분들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년 전, 저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더 나은 서구, 더 편한 서구, 더 좋은 서구’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을 발판 삼아 60만 서구시대를 열어가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골목 경제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전국 최다인 17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상점가 컨설팅, 공동마케팅, 상인대학 운영, 공동시설 환경 개선 등 서구형 핀셋 지원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월에 준공한 신거북시장은 넉넉한 주차장과 현대식 판매시설로 경쟁력은 물론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2023년 국·시비 공모사업에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9개소가 선정돼 서구 상권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15억원 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을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123억5천만 원 용자로 관내 71개소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해외판로개척 지원에 이어 신규 사업으로 국내 박람회 개별참가를 지원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뷰티플파크와 아이푸드파크단지에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복지공유제의 첫 결실로 노을진캠핑장 이용권을 제공하는 등 경영하기 좋고 일할 맛 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업&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취업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내실 있는 채용행사를 개최해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과 사람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서구형 노인일자리 창출,
신증년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AI·로봇산업 육성
프로젝트, 경력단절여성 경제독립 프로젝트 등
지역 특색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역시
놓치는 부분 없이 세심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 친화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출산·육아·아빠육아휴직·산후조리 지원사업을 늘리고,
난임부부는 소득제한 없이 전 계층에 시술비를 확대
지원해 출산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아이사랑꿈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보육 인프라 확대는 물론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쌀 제공,
야간휴일 동네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등
양질의 보육·돌봄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촘촘한 돌봄이 탄탄한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중학생을 위한 진로 멘토링 사업과 저소득층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 민·관·학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조성하여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가족 역량 강화에도 나섭니다.

여성친화공간인 '서로여친뜨락'과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노력은 아동과 여성은 물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청리지역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한데 이어 올 4월에는 석남이음숲 일대에 약 8만㎡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아 숲 체험원과 자녀안심 그린 숲 등 녹지 조성사업은 푸른 서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바른성장 학생체형 건강관리와 생리통 한방치료 시범사업 등 청소년뿐만 아니라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전 계층의 건강을 두루 챙기고자 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 추가 설치,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인천시 최초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인 '마음안심버스' 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 욕구를 충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였습니다.

주민은 민선 8기 변화의 시작이자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민선 8기의 시작은 언제나 주민이라는 자세로, 출범과 함께 '핵심 가치 공감 간담회' '주민자치 총회' '23개 동 연두 방문' '주요 사업 현장' 등 주민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서구 발전의 힘은 언제나 주민에게서 나옵니다.

수도권매립지종료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지역 분구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도 많은 주민이 목소리를 내어 주셨습니다.

비록 결과에 아쉬움은 남지만, 재외동포청 유치 범주민 서명운동에는 짧은 기간임에도 8만7천여 명의 주민분들이 동참해 서구의 결집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의 관심과 뜨거운 열정에 힘입어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 유치에도
다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과 힘을 모아
서구 발전을 이뤄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 중에서
벅차고 웅장했던 순간은 바로
지난 5월 31일 인구 60만 돌파 기념식입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위축됐던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고
서구 주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고자 마련한
행사였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축하해주시고 함께 즐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60만 서구의 증지와 성장 동력을 느낄 수
있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커지는 외형만큼이나 그에 걸맞은 내실을
살뜰히 챙겨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서구의 매력과 장점을 더욱 발굴해 커진 규모만큼
국민의 행복도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있는 서구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생마을, 가좌3구역, 신현원마을, 가재울숲문화마을, 석남3동 행복마을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원도심의 역사성과 정체성은 물론 신도시의 쾌적함과 스마트함이 어우러진 재생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동 일원 높이규제 완화로 원도심과 신도시의 경관 격차를 해소하고, 최근 개칭한 가정1동,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복지 서비스는 물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끈끈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협의권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을 위한 김포시와 협약에서 우려했던 건폐장 이전을 서구 영향권 밖으로 결정함에 따라 연장 노선 합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TX-D노선 조기 착공 및 GTX-E노선 신설, 서울도시철도 2호선 청라 연장 등에 구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촘촘한 그물망을 갖춘 철도망과 함께 연계 도로를 개설해 서북부지역의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합하는 따뜻한 서구가 되고자 합니다.

어린이참여위원회, 아동이 기획·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축제기획단 “리온”, 서구청년의 일상을 함께하는 “청년센터 1939”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하고 화합을 이끄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운영으로 튼튼한 공동체 문화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60만 서구 구정 운영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연희동 골목형 상점가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협약을 올 1월에는 서구 전역 골목형 상점가 17곳으로 확대해 위기 가구 발굴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1천16개소의 골목 상점을 활용한 촘촘한 복지 그물망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인천시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인 서구는 차별 없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직업훈련지원 서비스,
의료재활 서비스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장애인 행복 드림타운을 조속히 건립하여 모두가 누리는
최고의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서구'를
선보이겠습니다.

지난 6월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서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서구복지재단 설립을
차근차근 추진하여, 커진 외형만큼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우리 구에 필요한 특색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인천 10개 구·구중 내륙면적이 가장 넓고,
인구 또한 69개 자치구 중 송파구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커진 외형을 알차게 채울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22개의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유치 지원,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5개의 대규모 개발 사업과,
GTX-D, 서울 5호선 검단 연장 등 8개의 철도사업 등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대형 국·시책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에는 공연장으로 활용될
멀티스타디움 돔구장을 비롯해 의료복합타운과 금융타운,
영상·문화복합단지외의 대형 인프라가 속속 들어설
예정으로 차근차근 준비 중입니다.

계획인구 18만에 달하는 검단신도시는 최근 택지개발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규모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니 신도시급인 루원시티 역시 루원복합청사와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트에 인천지방국세청을 갖춘 행정복합타운까지
가속도를 붙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라생활문화센터는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모를 키우는 것뿐 아니라 수변공원과도 연결해
선보이게 됩니다. 서구문화회관 역시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에 기반한 예술 창작환경 조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좌국민체육센터, 원당문화체육센터, 불로문화체육센터,
원당게이트볼장 건립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속에서 누구나 누리는 건강한 문화·스포츠 도시를
이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취임 당시 첫 마음을 기억하며, 변함없이 주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60만 주민의 바람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 없이 생활을 누리고
내 집 주변에서 만나는 일상 문화로 행복을 채우고
은퇴한 사람들이 이사 와서 편히 여생을 보내는 도시
이게 바로 서구의 내일입니다.

60만 주민이 행복한 일상을 꿈꾸는 서구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희망찬 내일을 함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서구의 빛나는 내일과 60만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